

“카페에서 공존공생 모색해요”

강좌·재능나눔·기부 펼치는 불교계 대안공간 카페 '주목'

4월 12일 7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문화공간 카페 숨도는 예코웨딩 강좌가 한창이었다. 옥수수전분 소재로 만든 드레스, 화분으로 전환 가능한 뿌리째 만든 부케, 유기농 뷔페 등이 소개되자 관중 30여명은 별세계를 만난 듯 눈빛을 반짝이며 강연을 경청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똑같은 인테리어 똑같은 메뉴의 카페가 거리마다 즐비한 요즘 미래의 새로운 대안 문화를 모색하는 특색 있는 불교 카페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숨도를 비롯 정도회 청년부가 주축이 된 옹공카페, 티베트 난민 지원회 목적으로 하는 '사직동 그 가게', 원불교 재단의 씨름마고 등 불교계 대안문화를 지향하는 카페들을 모아봤다.

숨도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지원하는 카페로 호흡을 뜻하는 '숨'과 길을 뜻하는 '도'가 만나 생명의 순결과 진실의 깊이를 뜻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숨도의 공간은 1층 숨 아일랜즈와 7층 숨도 아카데미로 나뉜다. 책극장, 작은전시관, 카페 신타로 나뉘어진 1층 숨 아일랜즈는 주말마다 활발한 책클럽 모임이 이루어지고 생명 존중과 자연 사랑을 주제로 하는 무료전시도 펼쳐진다. 또한 7층 숨도 아카데미에서는 세미나, 명상·요가·다도·에코 수업 등이 펼쳐진다. 특히, 강좌의 경우 1만원 수준이던 들을 수 있어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숨도 박고은 팀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곳이 불교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교색을 조금 뒤로 하고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예술, 환경, 명상 등을 통해 불교 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02) 717-3535

지난 4월 1일 오픈 한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 마포의 카페 숨도는 젊은층에게 불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대안문화 공간이다. 숨도는 독서클럽 모임 무료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1층과 7층의 세미나 공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옹공 카페'도 대안문화 공간 중 하나다. 오십 명이 100만원씩을 투자해 투자자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카페는 서로의 재능과 자원을 나누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 개념의 공간이다. 그래서 옹공카페는 메뉴개발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함께 만들어가는 카페를 지향한다.

조정훈 옹공카페 매니저는 “정도회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오십 명의 투자자가 주인이 되어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설립취지에 더 집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의 투자자들은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불제자들이 모여 이룬 공간인 만큼 대안 공동체 공간을 확장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또한 옹공카페에서는 중국어, 목공예, 단소, 공동체 관련 강의로 펼쳐진다. 만일 안팎의 음료쿠폰 정도만 구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재능을 나누

는 대안문화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02)598-8804

“사직동 그 가게” 역시 수익금을 티베트 난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안카페다. 이곳에서는 티베트식 차와 요리 수공예품들이 판매되며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070)4045-6331 이밖에도 원불교 은덕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종로구 원서동의 씨름 마고는 시민단체와 환경·여성 단체의 모임 행사는 물론 직장인들의 소그룹 모임과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02)747-3152

숨도 박고은 팀장은 “생태 나눔 내려놓음 등 불교적 가치를 전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런 공간을 찾는 이들은 불교의 실질적 가치가 생활 속에 스며들어 세상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글=정혜숙 기자 bwshs@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1 옹공카페는 회원들의 기부로 이루어지는 카페로 메뉴개발에서 강좌까지 회원들이 주인이 된다. 사진은 4월 11일 메뉴개발 강연대회 장면. 2 숨도는 세미나는 물론 예코, 명상, 요가 등 다양한 문화 강좌가 열린다. 사진은 4월 12일 열린 예코웨딩 강좌 장면.

박재원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분황사에 가면 황룡사가 그림다



분황사에 가면 황룡사가 그림다. 본 적도 없는 황룡사가 그림다. 아무것도 없는 '그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아깝다. 그 쪽으로 날아가는 새들도 아깝고, 그 쪽으로 날아가는 새들도 아깝다. 그 쪽으로는 불지도 말고 날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쪽으로 가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황룡사가 아깝다. 황룡사는 없는데 분황사에만 가면 황룡사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쪽'으로 걸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황룡사가 그림다. '그 쪽'에서 서서 분황사를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또 아깝다. 그 쪽으로 날아가는 새들도 아깝고, 그 쪽으로 날아가는 새들도 아깝다. 그냥 그 쪽으로 가는 것들이 황룡사처럼 아깝다. 분황사에 가면 황룡사가 그림다. 아무것도 없는 '그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분황사가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분황사에 가면 황룡사가 그림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경상 조선 용담조관 선사의 '물에 다다라 읊음[臨水偶吟]'

천지가 하나의 뜬 물거품

步出臨溪上 (보출림계상)
清波逝不休 (청파서불휴)
細觀無所住 (세관무소주)
天地一浮? (천지일부구)

걸음 내어 시내가 다다르니
맑은 물결 읊 읊이 흐르네.
자세히 보니 머무는 곳 없어라
천지가 하나의 뜬 물거품이네

조선 용담조관(龍潭?冠; 1700~1762) 스님이 포행 하다가 흐르는 물에서 본 '공(空)도리'를 읊은 것이다.

스님은 공부하다 물가로 포행을 나섰다. 맑은 물결이 읊 읊이 흐르는 물가에 앉아 가만히 흐르는 물을 바라본다. 머무름이 없이 계속 흘러가는 물에서 <금강경> 사구계(四句偈)인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應無所住 而生其心]'의 도리를 깨달은 것이다. 경에서는 색·소리·향기·맛·감촉·일체 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하였다. 대상에 반연하

여, 경계에 깰려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멸하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空)인 것이다.

첫 구에서 스님은 걸음을 내었다하였고 제3구에서 자세히 보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스님 앞에 펼쳐져 있는 흐르는 물인 자연뿐이다. '걸음을 내었다'는 것은 출가하여 도를 이루려는 스님의 의지작용을 '자세히 보았다'는 것은 스님의 공부가 날로 순수해져 세밀한 움직임조차도 놓치지

않고 관하는 수행의 진취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리라. '물'은 차안과 피안의 갈림길을 '흐르는 물결'은 집착할 것 없음을 '뜬 물거품'은 무상함의 도리를 비유한 것 일체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은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는 무게감이 은연중 불법과 일체 거리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는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경에서 표현해 내었음을 뿐이라는, 도(道)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선(禪)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하여 깨닫지 못한 이는 '이해불가' '해석불가'라는 선시의 관념을 스님은 보기 좋게 무너뜨려 주었다.



원법 스님(문문사 종강·조계종 교수사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南宮 后 人 翁 吉 翁 靈 駕

行孝 伏為

고급 밤나무 재질, 울칠 마감, 수작업 개금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특단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02-966-9650
휴대전화: 010-8238-1511
팩스: 02-921-9650
홈페이지: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미음

민속죽염

25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곡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있는 그대로가 평등이고 보이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生活禪 지침서

있는 그대로 보아라

허정스님 저음
신국판 | 2도 | 360쪽
15,0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오늘도 부처가 부처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실지전·조각각하의 일상수행 이야기

부처님 최후의 진실한 가르침인 법화경과 불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법문인 보살매론, 알송달송한 선(禪)을 주제로 한 허정스님(마주 약천사 주지)의 생활법문들은 삶에 사랑하고 깨우쳐가는 행복한 불자가 되는 길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바로보인 불법

바른 불자가 됩시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불법 이야기

신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요즘 불자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031-534-3373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